

高麗 『初雕大藏經』  
華嚴經(周本) 卷60에 나타난 校正의 痕迹\*

Traces of Revision are in the Vol.60 Abstract of Tripitaka  
Koreana Hwayemgyeong

柳 富 鉉 (Boo-Hyeon Yoo)\*\*

〈 목 차 〉

- |                                  |   |
|----------------------------------|---|
| I. 緒 言                           | III. 『初雕大藏經』 華嚴經(周本) 卷60에<br>나타난 校正의 痕迹 |
| II. 『初雕大藏經』 華嚴經(周本) 卷60의<br>文字異同 | IV. 結 言                                 |

초 록

본고는 『初雕大藏經』板刻이 완료된 이후 다시 校正을 하여 補刻한 痕迹을 『初雕大藏經』 華嚴經(周本) 卷60에서 찾아내어 분석한 것이다. 문제의 교정 흔적은 “建立智慧幢 堅固不動搖 ‘知’无變化法 而現變化事”의 내용 가운데 ‘知’字에서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 문제의 ‘知’字는 여타의 문자보다 상당히 크고 墨色 또한 다른 글자보다 매우 진했다. 이 현상에 의거해서 필자는 이 ‘知’字는 『初雕大藏經』의 板刻이 完了된 이후 다시 校正되어 補刻되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것은 『初雕大藏經』의 교정이 상당히 완벽했음을 입증해주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이다.

키워드: 화엄경, 교정

ABSTRACT

The writer of this study analyzed the traces that are made by revising and replenishing after finishing engraving of *Chojodaejanggyeong* into the Vol.60 Abstract of Tripitaka Koreana 周本 Hwayemgyeong. It can be a clue that proves the revising of *Chojodaejanggyeong* was considerably complete.

Keywords: Huayemgung, Revision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大眞大學校 學術研究費支援에 의한 것임.

\*\* 大眞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教授(boohyun@daejin.ac.kr)

• 접수일: 2008년 4월 30일 • 최초심사일: 2008년 5월 26일 • 최종심사일: 2008년 6월 21일

## I. 緒言

주지하듯이 고려 『初雕大藏經』은 高麗 顯宗 2(1011)년부터 宣宗 4(1087)년까지 雕造되었고 이후 그 經板은 大邱의 符仁寺에 收藏되고 있다가 高宗 19(1232)년 蒙古의 침입 때 燒失되었다. 그리고 『再雕大藏經』은 고려 高宗 23(1236)년부터 38(1251)년까지 雕造되었고 그 經板은 현재까지 海印寺에 남아 있다. 이들 대장경은 이른바 “宋本”인 『開寶勅版大藏經』(『開寶藏』)을 저본으로 刻成된 것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 필자는 湖林博物館에 수장되어 있는 『初雕大藏經』51卷 과 이에 해당되는 『再雕大藏經』 및 『金藏』<sup>1)</sup>의 經典 51卷 대조하여, “이 세 版本은 각각 다른 『開寶藏』의 覆刻本 즉 각각 다르게 수정된 『開寶藏』의 복각본이거나,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開寶藏』에 나름대로의 校勘과 修訂을 가한 다음 수정된 각각의 『開寶藏』을 登梓本으로 삼아 복각된 것”으로 이해하였다.<sup>2)</sup> 다시 말해서 필자는 『初雕大藏經』과 『再雕大藏經』은 대체로 『開寶藏』에 교감과 수정을 가한 다음 수정된 『開寶藏』을 登梓本으로 삼아 복각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최근 板刻이 완료된 이후에도 다시 校勘을 하여 校正·補刻한 흔적이 있는 『初雕大藏經』 1권을 발견하였다. 板刻이 완료된 이후 다시 교감을 하여 교정을 했다는 것은 그 교감의 완벽성을 짐작케 하는 중요한 단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初雕大藏經』 板刻이 완료된 이후 다시 校勘을 하여 補刻한 흔적이 있는 『初雕大藏經』 華嚴經(周本) 卷60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初雕大藏經』 華嚴經(周本) 卷60을 여러 판본과 대조하여 문자이동의 상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교감의 흔적이라고 생각되는 文字異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初雕大藏經』의 교감이 상당히 완벽했음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다.

## II. 『初雕大藏經』 華嚴經(周本) 卷60의 文字異同

여기에서는 『初雕大藏經』 華嚴經(周本) 卷60을 중심으로 여타의 版本과 대조하여 각 판본 간에 나타난 文字異同의 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原文의 대조가 가능한 華嚴經(周本)

- 
- 1) 『金藏』은 1149년(金 皇統 9年, 南宋의 紹興 19年)에 雕造를 시작하여 1173년(金 大定 13年, 南宋의 乾道 9年)에 완성된 것이다. 이 대장경은 『開寶藏』의 覆刻本인데, 裝訂은 卷軸裝이며, 每版 23行, 每行 14字로서 『開寶藏』의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金藏』에 수록된 經典은 7,000 餘卷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5,380 여권이다. 이 『金藏』은 현재 4種의 印本이 남아 있으며 『中華大藏經』에 그 주된 底本으로서 影印·收錄되어 있다(柳富鉉, “高麗大藏經의 底本과 板刻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2001), p.121).
  - 2) 柳富鉉, “高麗大藏經의 底本과 板刻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2001), p.124.

卷60의 판본은 아래와 같이 모두 11種이다.

- (1) 敦煌寫本<sup>3)</sup>([敦煌]으로 약칭함)
- (2) 契丹本<sup>4)</sup>(1042)([契丹]으로 약칭함)
- (3) 高麗初雕藏本<sup>5)</sup>(1011-1087)([初雕]로 약칭함)
- (4) 高麗再雕藏本(1236-1251)([再雕]로 약칭함)
- (5) 金藏本(1149-1173)([金藏]으로 약칭함)
- (6) 資福藏本(1175)([資福]으로 약칭함)
- (7) 積砂藏本(1216-1322)([積砂]로 약칭함)
- (8) 普寧藏本(1277-1290)([普寧]으로 약칭함)
- (9) 永樂南藏本(1412)([永南]으로 약칭함)
- (10) 徑山藏本(1589-1707)([徑山]으로 약칭함)
- (11) 清藏本(1733-1738)([清藏]으로 약칭함)

앞에서 살펴본 諸本 가운데 [敦煌]·[契丹]·[初雕]를 제외한 모든 판본에 수록된 華嚴經(周本) 卷60의 문자이동에 대해서는 이미 『中華大藏經』<sup>6)</sup>에서 [金藏]을 底本으로 삼고 기타 諸本과 對校하여 모두 10個項의 校勘記를 첨부해 놓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10個項의 校勘記를 토대로 해서 [敦煌]·[契丹]·[初雕]를 합한 對校表를 만들면 “文字異同 對校表”와 같다.

#### 〈 “華嚴經(周本) 卷60의 文字異同 對校表”의 說明 〉

- 1) ‘類型’ : 諸本 사이에 나타난 文字異同의 類型
- 2) ‘項次’ : 『中華大藏經』의 校勘記에 收錄된 文字異同의 羅列 順番
- 3) ‘面行字’ : 『中華大藏經』제13冊의 面, 行, 字數
- 4) ‘○’ : 該當 文字가 없는 것
- 5) ‘△’ : 該當 文字가 毀損이나 缺落되어 認識할 수 없는 것

3) [敦煌]은 敦煌遺書 가운데 華嚴經(周本) 卷60의 殘本으로서 스타인 문서 3623號와 北京圖書館所藏本 63號이다 (敦煌大藏經編輯委員會編, 『敦煌大藏經』(全63冊)(華夏出版社, 2000), 제21책, pp.748-758).

4) 이 契丹本은 重熙 11(1042)년에 雕印된 것으로서 每張12行, 每行 30字인 蝴蝶裝 小字本인데 현재 中國 河北省 豐潤縣 文物管理所에 收藏되어 있다. <부록 1, 2>의 圖版 참조.

5) 이 高麗 初雕大藏經本은 韓相奉의 收藏本이다.

6) 『中華大藏經』은 中國의 中華書局에서 1984년부터 1995년까지 年次的으로 刊行된 것이다. 이 大藏經은 基本的으로 『金藏』을 底本으로 하고, 『金藏』의 缺本과 未入藏된 것은 高麗 再雕大藏經』과 餘他의 大藏經으로 補充한 것으로 總 106冊에 達하는 大藏經이다.

“華嚴經(周本) 卷60의 文字異同 對校表”

項次	1	2	3	4	5	6	7	8	9	10
面 行 字	253中 15 8·9	253下 2 11	253下 10 10	258下 15 7	259上 5 12	259中 12 2	260上 20 4	261下 7 6	262中 23 1	263上 4 7
敦煌	△	△	△	就	來	集	△	知	熟	提
契丹	智惠	眼	道	就	來	集	嫫	知	孰	提
初雕	○	眼	△	就	來	集	采	知	熟	薩
金藏	智惠	明	道	就	求	集	采	如	熟	薩
再雕	○	眼	一切道	熟	來	習	采	知	孰	提
資福	○	眼	道	就	來	習	采	知	孰	提
磧砂	○	眼	道	就	來	習	采	知	孰	提
普寧	○	眼	道	就	來	習	采	知	孰	提
永南	○	眼	道	就	來	習	嫫	知	孰	提
徑山	○	眼	道	就	來	習	嫫	知	孰	提
清藏	○	眼	道	就	來	習	嫫	知	孰	提

### Ⅲ. 『初雕大藏經』 華嚴經(周本) 卷60에 나타난 校正의 痕迹

앞 장에서 살펴본 “華嚴經(周本) 卷60의 文字異同 對校表”에서 제 8 項에 해당되는 “‘如’·‘知’”의 文字異同이 바로 『初雕大藏經』의 板刻이 완료된 이후 다시 교감을 하여 校正·補刻한 흔적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如’·‘知’”의 文字異同이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建立智慧幢 堅固不動搖 ‘知’无變化法 而現變化事”와 같다. 文字異同 對校表 상에는 [金藏]만이 문제의 ‘知’字가 ‘如’로 되어 있다(부록 7 참조). 이것은 [金藏]의 저본인 『開寶藏』에서 ‘知’가 ‘如’字로 板刻되었던 것이 [金藏]에까지 인습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初雕] 역시 [金藏]처럼 『開寶藏』을 저본으로 해서 판각되었기 때문에(부록 3, 4, 5, 6 참조), [初雕]에서도 처음에는 [金藏]과 동일하게 이 ‘知’字가 ‘如’로 板刻되었지만, 板刻이 완료된 이후 다시 校勘을 거쳐 이 ‘如’字가 ‘知’로 校正·補刻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추측이 가능한 것은 문제의 ‘知’字가 <부록 7> “『初雕大藏經』의 校正·補刻 痕迹 및 『初雕大藏經』의 校正·補刻 痕迹에 대한 『金藏』의 同一 部分”에서 확인되듯이 여타의 문자보다는 글자 크기가 상당히 크고, 墨色 또한 다른 글자보다 매우 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 ‘知’字가 원래 ‘如’字이었던 것인데 ‘知’字로 校正·補刻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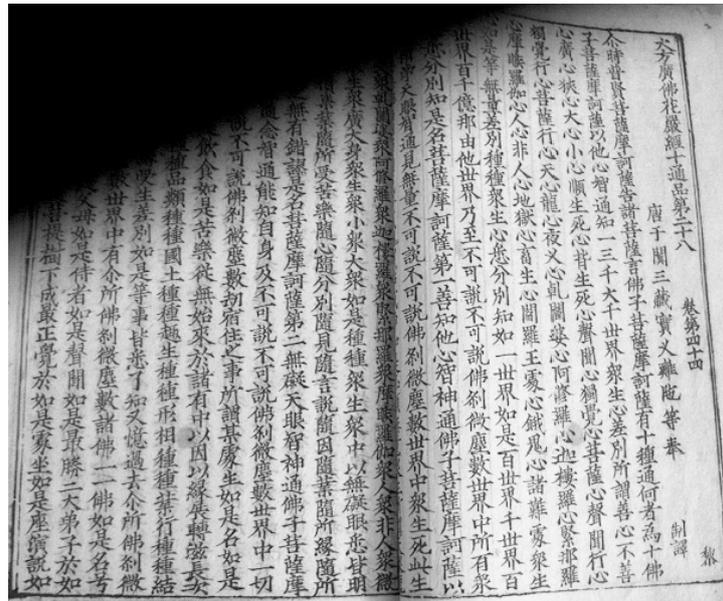
#### IV. 結 言

본고는 『初雕大藏經』의 板刻이 완료된 이후 다시 校勘을 하여 校正·補刻한 痕迹을 『初雕大藏經』 華嚴經(周本) 卷60에서 찾아내어 분석한 것이다. 문제의 교정 흔적은 “建立智慧幢 堅固不動搖 ‘知’无變化法 而現變化事”의 내용 가운데 ‘知’字에서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 문제의 ‘知’字는 여타의 문자보다 상당히 크고 墨色 또한 다른 글자보다 매우 진했다. 이와 같은 현상에 의거해서 필자는 이 ‘知’字는 『初雕大藏經』 華嚴經(周本) 卷60에 원래 ‘如’字로 되어 있던 것인데, 『初雕大藏經』의 板刻이 完了된 이후 다시 校勘되어 ‘知’字로 校正·補刻되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것은 『初雕大藏經』의 校勘이 상당히 완벽했음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東國大學校影印. 『高麗再雕大藏經』. 1976.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1984.  
蔡運辰編. 『二十五種藏經目錄對照考釋』. 1984.  
敦煌大藏經編輯委員會編. 『敦煌大藏經』(全63冊). 華夏出版社, 2000.  
柳富鉉. “『高麗大藏經』의 底本과 板刻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 (2001).

〈부록 1〉 “契丹本 華嚴經(蝴蝶裝 小字本)의 一面”



〈부록 2〉 “契丹本 華嚴經(蝴蝶裝 小字本)의 表紙面”



〈부록 3〉 “『初雕大藏經』 華嚴經(周本) 卷60의 卷首”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譯  
 入法界品第三十九之一  
 尔時世尊在室羅筏國逝多林給孤獨園大莊嚴重閣與菩薩摩訶薩五百人俱普賢菩薩文殊師利菩薩而為上首其名曰光嚴幢菩薩須彌幢菩薩寶幢菩薩無尋幢菩薩華幢菩薩離垢幢菩薩日幢菩薩妙幢菩薩離塵菩薩普光幢菩薩地威力菩薩寶威力菩薩大威力菩薩金剛智威力菩薩離塵垢威力菩薩正法日威力菩薩功德山威力菩薩智光影威力菩薩普吉祥威力菩薩地藏菩薩虛空藏菩薩蓮華藏菩薩寶藏菩薩日藏菩薩淨德藏菩薩法印藏菩薩

〈부록 4〉 “『金藏』 華嚴經(周本) 卷60의 卷首”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  
 唐于闐國三藏實叉難陀譯  
 入法界品第三十九之一  
 尔時世尊在室羅筏國逝多林給孤獨園大莊嚴重閣與菩薩摩訶薩五百人俱普賢菩薩文殊師利菩薩而為上首其名曰光焰幢菩薩須彌幢菩薩寶幢菩薩無尋幢菩薩花幢菩薩離垢幢菩薩日幢菩薩妙幢菩薩離塵幢菩薩普光幢菩薩地威力菩薩寶威力菩薩金剛智威力菩薩離塵垢威力菩薩正法日威力菩薩功德山威力菩薩智光影威力菩薩普吉祥威力菩薩地藏菩薩虛空藏菩薩蓮花藏菩薩寶藏菩薩日藏菩薩淨德藏菩薩法印藏菩薩

〈부록 5〉 『初雕大藏經』華嚴經(周本) 卷60의 卷末

迴向大智慧	如來大悲	出現於世間
普為諸群生	轉無上法輪	如來無數劫
勤苦為衆生	云何諸世間	能報大師恩
寧於无量劫	受諸惡道苦	終不捨如來
而求於出離	寧代諸衆生	備受一切苦
終不捨於佛	而求得安樂	寧在諸惡趣
恒得聞佛名	不願生善道	暫時不聞佛
寧生諸地獄	一一無數劫	終不遠離佛
而求出惡趣	何故願久住	一切諸惡道
以得見如來	增長智慧故	若得見於佛
除滅一切苦	能入諸如來	大智之境界
若得見於佛	捨離一切障	長養無盡福
成就菩提道	如來能永斷	一切衆生疑
隨其心所樂	普皆令滿足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

〈부록 6〉 『金藏』華嚴經(周本) 卷60의 卷末

迴向大智慧	如來大悲	出現於世間
普為諸群生	轉無上法輪	如來無數劫
勤苦為衆生	云何諸世間	能報大師恩
寧於无量劫	受諸惡道苦	終不捨如來
而求於出離	寧代諸衆生	備受一切苦
終不捨於佛	而求得安樂	寧在諸惡趣
恒得聞佛名	不願生善道	暫時不聞佛
寧生諸地獄	一一無數劫	終不遠離佛
而求出惡趣	何故願久住	一切諸惡道
以得見如來	增長智慧故	若得見於佛
除滅一切苦	能入諸如來	大智之境界
若得見於佛	捨離一切障	長養無盡福
成就菩提道	如來能永斷	一切衆生疑
隨其心所樂	普皆令滿足	

<부록 7> 『初雕大藏經』의 校正·補刻 痕迹(왼쪽 書影) 및 『初雕大藏經』의 校正·補刻 痕迹에 대한 『金藏』의 同一 部分(오른쪽 書影)

種種皆嚴飾 菩薩衆雲集 親近如來住  
汝觀無所著 无量大衆海 十方來詣此  
坐寶蓮花座 無來亦无住 無依无戲論  
離垢心無尋 究竟於法界 建立智慧幢  
堅固不動搖 知无變化法 而現變化事  
十方無量刹 一切諸佛所 同時悉往詣  
而亦不分身 汝觀釋師子 自在神通力

種種皆嚴飾 菩薩衆雲集 親近如來住  
汝觀無所著 无量大衆海 十方來詣此  
坐寶蓮花座 無來亦无住 無依无戲論  
離垢心無尋 究竟於法界 建立智慧幢  
堅固不動搖 如无變化法 而現變化事  
十方無量刹 一切諸佛所 同時悉往詣  
而亦不分身 汝觀釋師子 自在神通力

